



(왼쪽 왼쪽부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아랫줄 왼쪽부터)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손진영 기자·뉴스시스



하루 만에 6명... 진보·보수 대권주자들 '출마 러시'

조기 대통령선거의 막이 올랐다. 9일 하루 만에 6명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여당의 지위를 잃은 국민의힘은 이날 당 선관위 회의를 열고 "당심과 민심의 염원이 하나로 되는 후보를 선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당 선관위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기치 아래서 경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추, 이르면 오늘 출마선언 예정
김동연 "정권 넘어 시대교체 이룰 것"
김두관, 권양숙 여사·文 예방
김경수, 출마여부·시기 등 고심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후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참여해야 해서다. 출마 선언은 이르면 10일에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의 도전은 대선 경선까지 합치면 세 번째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 파면까지 정국에 대한 소회를 담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를 출간한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출마 선언을 이어갔다. 미국 방문 일정이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이루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 비명계 대표 주자로 꼽힌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겨냥해 "포퓰리즘 정책,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출마를 선언했다. 시골 이장에서 시작해 남해군수를 역임한 김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고, 경남지사, 국회의원 등을 지낸 입지 전적인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부산과 봉하마을, 평산마을을 방문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반면 출마가 예상됐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그간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주장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선 출마 여부 및 시기 등을 고심하고 있는데, 이번주 내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봉하마을에 정착하며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경남지사에 당선되는 등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적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많은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입당... 공식화
유정복·이철우·이정현, 출마표
한동훈, 행보 이야기며 오늘 출마선언
오세훈·홍준표, 각 13·14일 출마
유승민, '오픈 프라이머리' 요구
안철수 "추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

보수 진영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입당을 마치고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8일)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김 전 장관은 과거 '노동계의 전설'로 불릴 정도로 20년 이상을 노동 운동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하며 국회의원, 경기지사 등을 역임하며 보수정당의 대표적인 대권 잠룡으로 성장했다. '탄핵 반대'를 외쳤던 김 전 장관은 이날 "계엄 절차가 위헌"이라며 어느 정도 중도층을 의식하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잇따라 출마표를 던지고 있다. 잠정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광역단체장으로 강원

(김진태)·충북(김영환)·경남(박완수)지사 외에 모두가 해당될 정도다. 이날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출마표를 던졌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이 지사는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후 각각 국회를 찾았다. 유정복 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선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고, 2014년·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이철우 지사는 19·20대 총선에서 경북 김천 국회의원으로 내리 당선됐으며, 2018·2022년 지방선거에서 연속으로 경북지사에 당선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출마선언을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한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 국면을 거치며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강력 반대하며 계엄 해체에 힘을 보탤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 대표직을 사퇴한 한 전 대표는 그간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내고 북콘서트를 갖는 등 정치 행보를 하고 있었다. 출마선언 시기를 고심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3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출마선언 장소는 오 시장의 '약자동행 정책'을 상징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한다. 민선 4·5기 서울 시장을 지내던 오 시장은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무산으로 직을 내려놓고 한동안 야인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승리하

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당선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4일 출마를 공식화한다. 홍 시장은 2017년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선거에 나선 바 있다. 또 지난 대선에선 당내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홍 시장도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셈이다. 홍 시장은 이번에 대구시장 직까지 내려놓고 대권에 도전한다.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출마 선언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요구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시간이 촉박해 경선률을 바꿀 수 없다"는 애기가 나온다. 과연 대선 승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진정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면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출마 선언을 완료했다. 안 의원의 대권 도전은 2012년부터 따지면 총 네 번째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전 대표는 호남 출신으로는 최초로 보수계열 정당 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도한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총선에서 맞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잠재적인 대선주자로 꼽힌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내달 3일 대선후보 선출

'명태균 방지 조항' 도입
국민의힘이 오는 5월3일 당 내 경선을 거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선거 일정과 컷오프(예비경선)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선관위는 4월 10일에 대선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4월 14~15일에 후보 등록을 받는다. 선관위는 서류 심사를 통해 부

적격자를 걸러내고 오는 16일 오후 2시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은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인 5월3일에 하기로 했다. 호준석 당 선관위 대변인은 서류심사를 두고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거르는 것"이라며 "이번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에 마약범죄, 담페이크 성범죄 등 조항을 추가해 여기에 (해당하면) 걸러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호 대변인은 관심을 모으는 구체적인

경선 방식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선 방식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려는 주자들은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이번 경선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주자들이 다수 도전장을 내민 만큼, 선관위 산하 클린경선 수호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또한 정치 브로커의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개입을 막기 위해 경선에 '명태균 방지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민주당, 선관위원장엔 '박범계 의원' 임명

특별당규준비위원장엔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내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엔 4선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경선 규칙을 정하는 특별당규준비위원장엔 4선 이춘석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2002년 노무현 캠프에 합류해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

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거쳐, 19대 총선 당시 대전 서구에 당선돼 4선을 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18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한 후 20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선 당 경선에서 탈락했고, 22대 총선에서 국회로 돌아오면서 4선에 올랐다. 아울러 당 선관위원으로는 김정호·임오경 부위원장, 임호선·박지혜·김남희·김동아·채현일·정진욱 의원 등이 포함됐다. /서예진 기자